

광주시·전남도의회 민선 6기 후반기 의장 인터뷰

“집행부와 소통... ‘희망 광주’ 만들것” “대화·협력으로 민주적 의회 운영”

이은방 광주시의회 의장

광주시의회 이은방 의장은 19일 “의회와 집행부 간 관계를 상호 동반자적 개념으로 접근하겠다”며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들을 실현시켜 광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제7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 의장은 이날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의회 본연의 임무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도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미래 희망이 있는 광주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도 많은 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후반기 원구성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끼쳐 드린 점,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한 뒤 “일당 독점 체제였던 시의회가 양당 체제로 변화하면서 그동안 한 번도 겪지 못했던 사안들에 대해 의회 내에서 서로 논의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소속인 이 의장은 “시의회가 양당체제로 변했고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인데다 윤창현 광주시장 또한 당적이 더불어민주당인 만큼, 집행부를 견제하고 의회 구성원을 한 데 아울러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어깨가 무겁다”면서



협의·협치 통한 의회상 정립
수영대회 등 현안 해결 주력
의회 인사권 독립 전문성 강화

“하지만, 제가 이번 하반기 의장선거에서 내세운 ‘검손과 배려, 상식이 통하는 의회’를 만들겠다는 공약처럼 그 어느 때보다 합의와 협의·협치를 통해 의회를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소속 정당을 떠나 모든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장은 “지난 2년은 민선 6기 광주가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먹거리 산업의 기틀을 다져가는 해였다”고 평가한 뒤 “이제 민선 6기 반환점을 돈 만큼 임기 내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서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9세계수영선수권대회 성공 개최, 도시철도 2호선의 성공적인 추진, 구간 경계 조정, 누리과정 예산 조정, 첨단 산단을 비롯한 공간 조성, 군 공항 이전 등 많은 주요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면서 “이러한 현안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광주시는 물론 정치권과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또 강한 의회를 강조했다. 그는 “의회 사무처 조직개편과 인사권 독립, 연구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화순 출신으로 재선 시의원인 이 의장은 지난 2006년 제5대 북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뒤 2010년 제6대 광주시의회에 입성해 전반기 부의장을 지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임명규 전남도의회 의장

“의원들과 함께 대화와 협력을 통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의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 임명규 의장은 19일 광주일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도의회 의정 운영방안과 관련,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일당체제에서 양당체제로 달라진 것과 관련, “도의원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난 총선 때 지형이 변화된 것 뿐이지, 사실상 소속 정당이 같은 한 뿌리였다. 아직 전남도의회는 양당체제로 보기 어렵다”면서 “양당 체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단점보다는 정치 지형의 혁신을 위한 하나의 변화로 보고, 장점이 더 많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 견제·감시 기능과 관련해서 “강한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으로, 강단 있는 정치력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소통 능력을 발휘해서 상생의 정치로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대화와 협력을 통해 모든 의사결정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유급 보좌관제에 대해서는 “올바른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



소통 통해 상생정치 펼 것
유급보좌관제 반드시 관철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최선

립과 전문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도의회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광역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유급 보좌관제 도입이 반드시 관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반기 의장 역할론에 대해서 “재선 의원으로서 도민과 소통하며 지방자치의 최고 목표인 주민복지향상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 왔다”며 “후반기 의장으로서는, 전남도의회가 도민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고 전문성 강화와 함께 활동력을 극대화시켜 존재감 있는 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정활동 철학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임 의장은 “초심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시도지사를 총 망라한 모든 정치인들이 갖춰야 할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이번에도 저의 변하지 않은 우직함을 동료 의원들이 알아주었기에 의장으로 선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전남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으로 신뢰를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임 의장은 이어 “앞으로 2년 동안 자를 비롯한 전남도의회 58명의 의원들은 도민에게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가 도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성 출신인 임명규 의장은 광주대를 졸업한 뒤 전남 남북교류협회 추진위원,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민주당 중앙당 대의원, 전남도립대 겸임교수, 민주당 전남도당 직능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종행기자 golee@

‘자랑스러운 전남인’ 뽑습니다

전남도, 8월말까지 후보자 접수

전남도가 2016년 ‘자랑스러운 전남인’으로 선발하기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후보자를 접수한다. 선발 분야는 경제, 관광·문화·체육, 도민 소득 증대, 사회 봉사, 사회 안정, 기타, 6개 분야다. 선발 예정 인원은 6~8명이다.

선발 대상은 전남에 주소나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 중 경제 활성화, 관광문화 육성, 도민 소득 증대, 도민 복지 향상 등에 기여했거나 헌신적 봉사로 도민들에게 감

동과 희망을 안겨준 사람이다.

후보자 추천은 기관·단체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된 후보자는 공적에 대한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도 누리집 공개를 통해 도민들의 검증을 받는다.

추천서는 전남도 및 시·군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도청 및 도내 시·군청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전남도는 1997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217명의 ‘자랑스러운 전남인’을 선발했으며, 매년 10월 25일 열리는 전남도민의 날 기념식에서 시상한다./윤현석기자chadol@

전남도 2년 연속 지방교부세 감액 제로 달성

전남도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을 상반기 지방교부세 감액 제를 달성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가 2016년 제1차 지방교부세 감액심의위원회를 열어 전국 65개 지자체의 2017년 지방교부세 중 240억원을 감액하기로 했다. 전남도의 감액 대상은 시·군 포함 5600만원으로 전국 최저 수준이다. 도 분청 감액은 아예 없다.

전국적으로 감액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감액은 사유별로 지방의회 의정활동 부담 지원 등을 포함한 법령 위반 과다 지출이 175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과징금 등 수입 징수 태만이 54억1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전남도 분청은 지난해 감액 제로 달성을 위해 인센티브 14억원을 받은 바 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국장급 17명 승진·전보

2급 도민안전실장 주동식

전남도는 19일 민선 6기 후반기 도정을 이끌어 갈 국장급 이상 17명에 대한 승진과 전보인사 대상자를 내정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민선 6기 후반기 역점과제 추진을 위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젊고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일과 성과, 전문성 중심으로 주요 보직에 배치했다는 것이 전남도의 설명이다.

2급 도민안전실장은 정병재 실장이 공로연수에 들어감에 따라 후임에는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을 승진 임용할 계획이다.

3급 국장급 인사대상은 15명으로, 윤승중 중·지지방행정국장(직무대리)은 직급 승진하고, 주동식 일자리정책실장의 후임으로 정찬군 장성부군수를, 부시장 전보에 따라 임체영 보성부군수를 경제과학국장으로 내정했다.

이기관 관광문화체육국장이 동부지역 본부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됨에 따라 서기원 한국전력공사 지역협력관을 관광문화체육국장으로, 김진남 곡성부군수를 한국전력공사에 파견한다.

해양수산과학원장에는 최연수 수산자원과장을 발탁해 해양수산분야 전문성을 강화했다.

도민안전실장을 지낸 정병재 이사관, 목포부시장을 지낸 이재철 부이사관과 여수부시장을 지낸 이승우 부이사관은 공로연수에 들어간다.

공로연수에 따른 후임에 목포부시장에는 이인곤 해양수산과학원장, 여수부시장에는 최충선 경제과학국장, 행정자치부로는 문동식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행정개발본부장을 각각 내정했다.

환경직인 전제영 동부지역본부장은 업무역량을 높이 평가받아 순천부시장으로 영전했다. 환경직이 부시장인 건 전남도 개청 이래 처음이다. 부군수 인사는 행정부, 일선 시·군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단행 예정이다.

전남도는 과장급과 5급 이하 인사도 별도 인사예고를 거쳐 8월 12일까지 마무리해 조직의 안정을 기할 방침이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신임 국장급 프로필



주동식 도민안전실장

기획력과 추진력에서 뛰어나다는 평가. F1대회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돌아오는 전남’ 등 전남도의 핵심사업에서 구원투수 역할. ▲여수(55) ▲한양대 경제학과 ▲목포시 부시장 ▲일자리정책실장



임체영 경제과학국장

온화하면서도 합리적인 일처리가 장점. 깔끔한 일처리로 좋은 평가를 받았고 투자유치에서도 성과를 낼 것이라 기대를 받고 있다. ▲구례(54) ▲전남대 행정학과 ▲기업도시과장 ▲보성군 부군수



윤승중 자치행정국장

원칙을 지키면서도 화합을 잘 이끌어내 직원들 사이에 신망이 두텁다. 글쓰기 재능도 뛰어나 지사의 연설문 작성을 전담. ▲광주(59) ▲방통대 행정학과 ▲장흥군 부군수 ▲공무원교육원장



정찬군 일자리정책실장

지방고시 출신으로 젊은 고위 간부의 대표 주자로 성장하고 있다. 여수엑스포 성공 개최에 기여했고 기업유치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평가. ▲나주(51) ▲전남대 행정학과 ▲기업유치과장 ▲장성군 부군수



서기원 관광문화국장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 근무하다 진정으로 복귀했다. 꼼꼼한 일처리로 전남의 문화관광 사업을 이끌 것으로 기대. ▲여수(58) ▲방통대 행정학과 ▲행정자치부 사회통합지원과장 ▲한국전력 협력관



수산물 인터넷 판매
무료 컨설팅

“더 큰 시장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한국수산물에서는 전자상거래시장 진출을 준비하거나 인터넷 판매가 부진한 어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무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인터넷 판매 지원

쇼핑몰 상품 등록, 주문 발주, 고객 관리 등 통합 대행

- 지마켓, 옥션, 수협쇼핑, 농협쇼핑, 우체국 등 판매 대행
- 대행으로 인한 추가 판매수수료 부담 해소 (여가 직접 입점 시와 동일한 수준의 판매수수료 부과)

수산물 패키지 디자인소스 무료 제공

- 국내산 수산물을 생산 또는 유통하는 어업인들에게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제공
- ‘피쉬디자인(www.fishdesign.co.kr)’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패키지 디자인 소스 무료 다운로드 가능
- 저작권 제한 없이 브랜드나 상호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상품 촬영, 상세 페이지 무료 제작

- 인터넷 판매에 필요한 상품 이미지 무료 제작
- 제작된 이미지는 저작권 제한 없이 어가에서 자유롭게 사용 가능



해양수산부



한국수산물

문의 : 한국수산물 유통진흥팀(02-589-0625)